

남겨두신 희망

열왕기상 19:13-21, 로마서 11:1-5

최정웅 목사님

방금 찬송을 불렀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찬송이다. 내가 혼자서 오르간을 치면서 이 찬송을 불렀더니, 신학생들이 다 올라오더라.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모양이다. 한 번 불러보시기 바란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는 끝났다. 이 사실을 믿고 힘을 얻으시기 바란다. 어린이찬양 중에, '혼자라고 느낄 때, 할 수 없다 생각될 때,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하는 가사가 있었다. '주저앉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어질 때, 그건 실책이 아니야' 그 가사를 기억하실 것이다. 혼자라 하고, 할 수 없다 하고,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 상태가 바로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의 상태였다.

우상을 가장 많이 섬기고 못된 짓을 가장 많이 했던 아합 왕과, 더 악했던 그 부인 이세벨의 때에, 엘리야는 펠박과 고난 속에서 도망치다가, 더 이상은 못 하겠다 하고 쓰러졌다. 열왕기상 19:4에 보면,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가지옵소서, 더 이상은 못 하겠습니다, 지쳤습니다' 그런다. 14절에 보면,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지만, 저 악한 자들이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소연한다. 엘리야가 한계에 부딪혔다. 인간에게 한계가 있다. 우리에게도 한계가 있다. 여기에 부딪히면 낙심할 수밖에 없다. 나만 보면, 현실만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세계는 다르다. 그래서 이것이 착각인 것이다. 엘리야는 자기와 현실만 생각하니 이렇게 생각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진짜 희망이 있고 능력이 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오늘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란다. 야고보는 엘리야를 가리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다. 우리도 그래서 엘리야와 같은 착각을 하기가 쉽다. 너무 외롭다, 이제는 더 이상 못 하겠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앞도 뒤도 보이지 않는다,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다, 정말 할 수 없다 하고 낙심에 빠진다. 성경은 그것을 착각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네 생각이다 하고 말씀하는 것이다. 왜 그런가? 기준이 '나'이기 때문이다. 기준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자꾸 나를 보고 환경을 보니까 착각, 절망,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다. 기준이 육신이 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 목표가 겨우 성공인데 그것을 못 하니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한다.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확실한 절망은 희망의 씨앗이라고 이야기한다. 정말 실망할 때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 나를 포기하고 전능자를 바라본다. 오늘 이 기준을 바꾸시기 바란다. 나 중심, 내가 기준이 되는, 세상이 기준이 되는 그것을 빨리 바꿔야 한다. 이것 때문에 착각이 오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보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오해를 던져 버리고 참된 이해를 하게 될 것이다. 엘리야는 '나는 끝났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나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하신다. 한 주간 동안, 착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참된 희망을 찾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한다.

1. 엘리야의 착각과 하나님의 진실

엘리야는 큰 착각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진실이 따로 있다고 하신다. 그것은 네 생각이다, 내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하신다.

(1) 엘리야의 착각

엘리야는 가장 악한 시대에 살았다. 악한 왕 아합과 부인 이세벨 때문에 큰 어려움이 왔다. 백성들은 우상에 빠져 있었고, 국가 권력이 여호와와 선지자를 펠박하고 죽이는 시대에 살고 있었다. 그때 엘리야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큰 역사를 일으켜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여호와만이 참 신임을 증명했다. 그런데 바로 그 후에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다. 승리했다고 생각했는데 더 큰 어려움이 왔다.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다 죽이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온 것이다. "엘리야를 잡아와라, 그 목을 다른 죽은 제사장들처럼 썰 것이다." 이렇게 체포령을 내렸다. 엘리야가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렇

게 해서 엘리야가 도망하다가 지쳐 쓰러졌다.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졌을 때, 엘리야가 말한다. "하나님, 나를 죽여 주세요. 더 이상은 못 견디겠습니다." 착각하게 된다. 나만 남았다는 것이다. 다 끝났다는 것이다. 나만 남았는데 나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것이다.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이기도 하지만, 착각이다. 여러분도 이런 처지에 있지는 않은가? 나를 생각할 때, 내 현실과 환경을 생각할 때, 육신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내 형편을 볼 때,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하는 착각을 하기 쉽다. 참사랑 가족 여러분,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가. 나라도 그렇잖아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가.

(2) 하나님의 진실

이때 엘리야가 보지 못했던 중요한 진실이 따로 있었다. 현실 뒤에 사실이 있고, 사실 뒤에 진실이 따로 있다.

①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나 혼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내가 창조자 전능자인데, 내가 너의 구원자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해 주겠다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복음을 가진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현실과 사실을 넘어서 이 진실을 바라보고 믿어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 것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모든 문제는 그가 다 해결하셨다. 나에게 지금 온 문제는 무엇인가? 그래서 현실과 사실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속에 있는 진실을 보라는 것이다. 위의 것을 바라보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계신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구약 320페이지를 펼치면 여호수아서가 나온다. 여호수아 1:5에 뭐라고 하는가?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수아야, 이 강대한 이스라엘을 이끄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해 주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 이것은 여호수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버린다 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해 주겠다." 마태복음 28:20에는, 세상 끝 날까지 항상 함께 해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세상은 만 가지 말을 가지고 우리와 우리 램넌트를 속이고 있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 말씀을 하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세상 끝 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해 주겠다."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란다. 창세기 3장의 '나'라는 착각에 속지 말고, 임마누엘의 진실을 붙잡게 되시기를 축원한다.

② 두 번째 진실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렇게 넘어지고 외롭고 소망이 없는 나에게 지금도 주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고 계신다는 것이다.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다. 5절에, "여호와 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기에서 힘을 얻고 엘리야가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렘에 이르게 된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니까 자꾸 좌절하고 착각하고 절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 그는 전능자시며 창조자시며 능력이 한이 없으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 대가로 우리를 살리시고, 그 아들을 부활시켜 우리의 생명이 영원함을 증명하셨다. 영적 세계에서 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 6장의 육신의 수준과 기준이라는 착각을 이기는 하나님의 진실이다.

③ 세 번째 진실이 있다. 엘리야는 나는 이제 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착각이라고 하신다. 하나님의 산 호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명과 미션을 다시 찾으라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실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다. 어제 이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쓴 글이다. 지금 95세다. "나는 지금 엄청난 실수를 했다.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서 65세가 되어서 은퇴했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으니 쉬어야 되겠다 해서 편만한 마음으로 밥 먹고 잠 자며 살았다. 몇 년 안 살 줄 알았는데 95세가 되었다. 30년을 완전히 허송세월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심을 하게 되었다. "나는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언어를 공부하고,

하고 싶은 일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앞으로 10년을 더 살면 105세가 되는데, 그때 가서 또 후회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시간을 맞지 않기 위해서, 나는 다시 시작하겠다.” 여러분, 지금이 시작하기에 딱 맞는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 글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 영어공부를 다시 해야 되나 싶다. (웃음) 95세에 가서 후회 안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다고 하신다. 세상이 말하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성공으로 반드시 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엘리야를 향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성공으로 반드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것 때문에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창세기 11장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천명완성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사랑하는 참사랑 가족 여러분, 모든 착각을 버리고 진실을 붙잡는 오늘 하루, 한 주간을 살게 되기를 축복한다. 세 가지 진실이다. 첫째,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둘째, 하늘의 영적 세계의 배경인 천군 천사가 나를 옹위하고 있다. 세 번째 진실, 할 수 없는 게 아니다. 내 할 일, 내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한다.

2.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는가? 다른 말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왜 나를 오늘까지 살게 했으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었으며, 형통함을 주었으며, 공부하게 하였으며, 넘어지게 했으며, 일어나게 했는가? 무엇 때문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고 붙잡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무능을 이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완성시키실 것이기 때문이다.

(1)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

①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를 불러서,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말씀하신다. 엘리야가 구구절절 하소연을 하니 하나님은 바로 말씀하신다. ‘길을 돌이켜 돌아가라. 현장으로 가라. 여기에서 주저앉지 마라. 기쁨을 준비해서 아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하나님이 예비해놓으신 것을 찾도록 현장으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가서 그것을 하라는 것이다. 엘리야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서론에 불과했다. 진짜 본론은 시작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사엘을 세우고, 예후를 세우고, 가장 중요한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으니까, 찾아서 세우면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한다.

② 특히 중요한 것을 말씀했다.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칠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나만 남은 것이 아니고, 바알에게 무릎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 놓았다는 것이다. 우상에게 무릎꿇지 않은 남은 자 7천 명이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죽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리빙스톤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다. 지리학자이기도 했다. 아프리카 밀림을 세 번이나 관통하면서 아프리카 지도를 완성했고,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했다. 이분이 밀림을 지나다가 사자에게 습격을 당했다. 사자에게 물려서 열이 40도 넘게 오르면서 죽어가게 되었다. 그 옆에서 흑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간호를 하면서, ‘우리 선생님이 이제 가시느구나’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분이 고통을 이기고 눈을 떴다.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 리빙스톤이 웃으면서 말했다. “이 사람들이야, 사람이 자기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죽는 게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을 다 했는가? 현당도 못 했지 않나. (웃음) 우리는 아직 할 일이 많다는 말이다.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할 일이 남았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한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이다.

하나님의 본론은 이제 시작이다. 이것을 믿고 현장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거기에 바알에게 무릎꿇지 않은 남은 자를 찾으면 된다. 후대 중에 남은 자를 찾으면 된다. 7천 제자와 함께 우상과 싸우는 것이다. 내 희망은, 교회를 현당하고 나면, 100억 원쯤 모아서, 학사도 짓고, 우리 램넛트들을 해외로까지 보내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군대 교육 교회까지 살리는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다. 허황된 꿈 같은가? 그렇지 않다. 꿈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2) 미션을 성취하는 방법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것이다. 바람도, 지진도, 불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사람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말씀을 듣고, 말씀의 힘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세상 것은 이것을 막을 수 없다. 어떤 핍박과 환난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막을 수 없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성취되게 되어 있다.

(3) 미션 성취의 결과

① 이것을 믿고 가니까 어떻게 되었는가? 가장 위험한 시대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오는 엘리야 같은 위대한 제자가 일어나게 되었다. 열왕기상의 엘리야와 열왕기하의 엘리야의 사적을 비교해 보라. 정말 갑절의 일을 했다. 갑절의 기적을 이루었다. 그런 제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런 제자가 우리에게도 찾아지기를 축복한다.

② 오바다 같은 숨은 중직자 제자가 나와서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겨서 보호했는데, 이런 사람이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③ 이 사람들과 함께 일어난 운동이 도단성 운동이다. 도단성을 비롯한 이스라엘 곳곳에 RUTC를 세우고 남은 자 7천을 찾게 되었다.

④ 이렇게 하니 온 나라가 변화되었다.

⑤ 강대국 아람을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눈, 복음의 눈으로 다시 보라. 놀라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본론이 현장에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남은 자 7천 명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다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도단성 운동의 역사가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착각을 버리고, 엘리야의 마음으로 현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은 후대, 도단성 운동과 같은 후대운동을 계속 일으키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계속 역사하시기를 기도한다.

결론을 말씀드리겠다.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간, 남은 자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한다. 오늘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간단히 나올 것이다. 혹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착각이 있다면 빨리 찾아서 던져 버려라. 나도 모르게 나를 속이고 낙심시키는 착각이 있으면 빨리 버려 버리시기를 축복한다. 어떻게 버리는가? 기준을 바꾸면 된다.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영적 세계,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 속에서 희망을 계속 찾게 될 것이다. 엘리야의 착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것을 나의 현장에서 찾아내게 되기를 축복한다. 엘리야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7천 제자를 찾는 역사가 일어나는 한 주간, 남은 생애 되기를 축복한다. 우리 모든 참사랑 가족들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라고,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주간을 살게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희망을 보게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한다. 남겨두신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실과 사실을 볼 때 너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실망이 되지만, 나는 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서,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역사 속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꿈을 꾸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명 소명 사명을 다했던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우리가 승리하도록, 주께서 우리 참사랑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